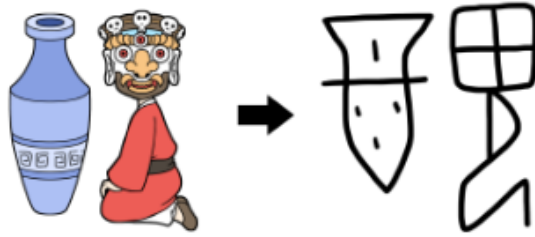


3
-
261

회의문자①



醜

추할 추

醜자는 '추하다'나 '못생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醜자는 酉(닭 유)자와 鬼(귀신 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酉자는 술병을 그린 것이다. 鬼자는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귀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면 웃고름이나 머리가 엉망이 될 것이다. 醜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빗대어 만든 글자로 술에 취해 용모가 귀신같이 된 사람을 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醜자는 '못생기다'나 '밉다'와 같이 용모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醜

갑골문

醜

금문

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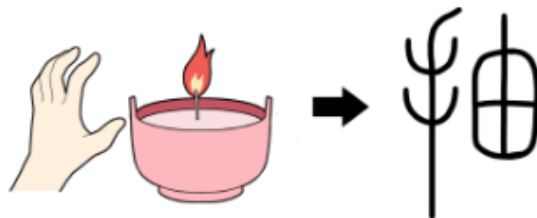
소전

醜

해서

3
-
262

회의문자①



抽

뽑을 추

抽자는 '뽑다'나 '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抽자는 手(손 수)자와 由(말미암을 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由자는 등잔과 심지를 그린 것이다. 抽자에서 말하는 '뽑다'라는 것은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당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抽자는 등잔의 심지를 그린 由자에 手자를 결합해 마치 등잔의 심지를 잡아당기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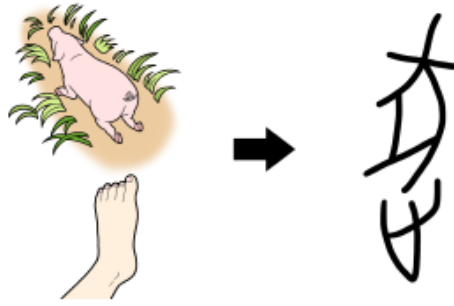
抽

소전

抽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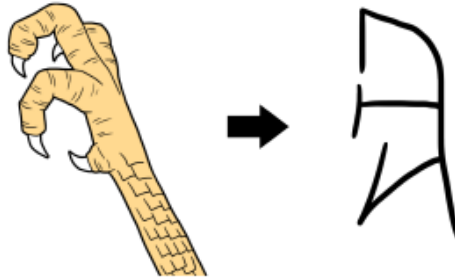
逐

쫓을 축

逐자는 '쫓다'나 '쫓아내다', '뒤따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逐자는 止(쉬엄쉬엄 갈 착)자와 豕(돼지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豕자는 돼지를 그린 것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逐자를 보면 豕자와 止(발 지)자만이 逐(뒤) 그려져 있었다. 돼지의 뒤쪽으로 발이 그려져 있는 것은 돼지를 뒤쫓는다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길을 뜻하는 辵(조금 걸을 척)자가 더해지면서 '뒤쫓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게 되었고, 소전에서는 止자가 이를 대신하면서 지금의 逐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상형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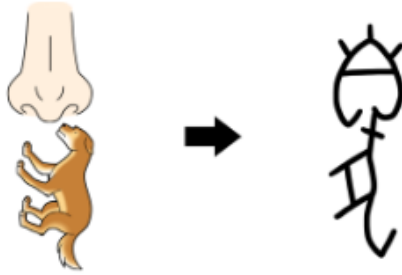
丑

소 축

丑자는 '소'나 '둘째 지지'를 뜻하는 글자이다. 丑자는 조류의 날카로운 발톱을 그린 것이다. 丑자의 갑골문을 보면 손을 뜻하는 又(또 우)자 끝에 발톱이 又 그려져 있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물갈퀴까지 又 표현되어있어 이것이 새의 발을 그렸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丑자의 본래 의미는 '발톱'이었다. 고대 중국어에서도 丑자와 爪(손톱 조)자를 혼용되었었다. 그러나 후에 丑자는 십이지의 '둘째 지지'인 '소'를 뜻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臭

냄새 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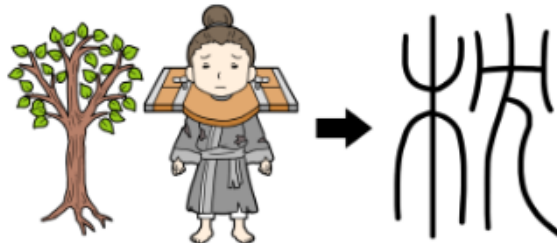
臭자는 '냄새'나 '썩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臭자는 自(스스로 자)자와 犬(개 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自자는 사람의 코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코를 그린 自자에 犬자가 결합한 臭자의 본래 의미는 '냄새를 맡다'였다. 후각이 예민한 개의 특성을 응용해 '냄새를 맡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臭자는 후에 '(고약한)냄새'라는 뜻으로 바뀌었는데, 自자와 犬자의 조합이 밖에 풀어 기르던 개에게서 나는 고약한 냄새를 연상케 했기 때문이다. 臭자가 이렇게 고약한 냄새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口(입 구)자를 더한 嗅(맡을 후)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감골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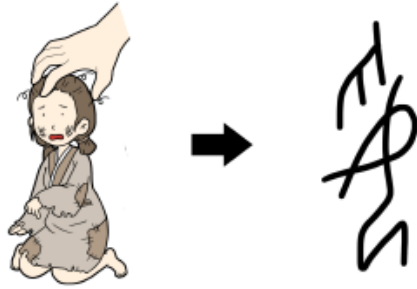
베개 침:

枕자는 '베개'나 '베다', '잠자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枕자는 木(나무 목)자와 尢(나아갈 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尢자는 목에 칼을 차고 걸어가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베개를 사용했었다. 그러니 枕자에 木자가 쓰인 것도 베개의 재질을 뜻한다 할 수 있다. 또한, 머리에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그린 尢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베개를 베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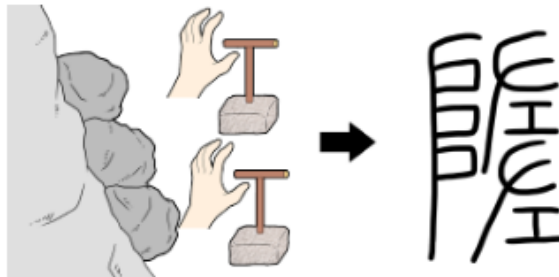
妥

온당할
타:

妥자는 '온당하다'나 '마땅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妥자는 𠂔(손톱 조)자와 女(여자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妥자를 보면 여자의 머리채를 붙잡으려는 듯한 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여자를 복종시킨다는 뜻이다. 집안이 평안해지려면 여자를 복종시켜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행동은 당연하다는 뜻이 확대되면서 妥자는 후에 '마땅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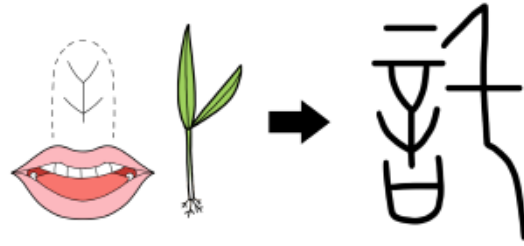
墮

떨어질
타:

墮자는 '떨어지다'나 '무너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墮자는 土(흙 토)자와 隋(수나라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隋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고기를 올리다가 떨어트렸음을 뜻하는 글자이다. 墮자는 이렇게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隋자에 土자를 결합한 것으로 '흙을 떨어뜨리다' 즉 '흙이 무너지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의 墮자는 주로 품행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托

말길 탁

托자는 '말기다'나 '부탁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托자는 手(손 수)자와 乇(부탁할 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乇자는 땅 위로 싹이 올라온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부탁하다'라는 뜻이 있다. 托자는 이렇게 '부탁하다'라는 뜻을 가진 乇자에 手자를 결합한 것으로 '부탁하여 말기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본래 소전에서까지만 하더라도 𢇛(말씀 언)자가 쓰인 託(부탁할 탁)자가 '부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托자가 만들어지면서 '(손을)빌린다'를 뜻하게 되었고 託자는 말로 부탁한다는 뜻으로 분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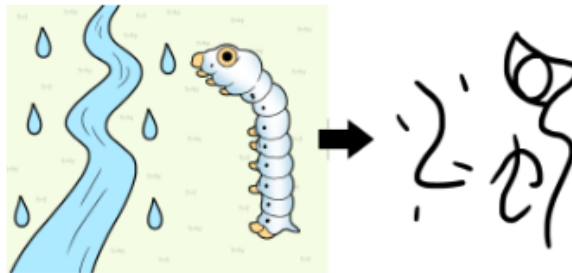
𢇛

소전

托

해서

회의문자 ①



濁

흐릴 탁

濁자는 '흐리다', '혼탁하다', '더럽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濁자는 水(물 수)자와 蜀(나라 이름 측)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蜀자는 몸통과 눈이 강조된 애벌레를 𧈧 그린 것이다. 濁자는 이렇게 벌레를 그린 蜀자를 응용해 벌레가 살 정도로 탁한 물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𧈧

금문

濁

소전

濁

해서